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Meta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heir Job Satisfaction

공은화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Eun-Hwa Gong(nemo688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의 방법으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 및 두 변수의 하위변수 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Cohen(1992)의 기준으로 중간 효과크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하위변수 중에서는 개인 교사효능감이 일반 교사효능감보다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직무자체 신념이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조절변수인 논문유형에서는 박사 학위논문이 효과크기가 높았으며, 출판연도와 표본 수는 메타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의와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교사효능감 | 직무만족 | 메타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meta-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arly chil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heir job satisfaction, and thereby look into the effect size of the two variables and their sub-variable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hose a total of 37 theses for analysis and collected 289 data for analyzing the effect size. Based on the data,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heir job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medium effect size on the basis of Cohen(1992) research. In the sub-variables of teaching efficacy, the correlation of personal teaching efficacy with job satisfaction showed higher effect size than that of general teaching efficacy. In the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lief in job and teaching efficacy showed the highest effect size. In terms of thesis type as a moderating variable, Ph.D dissertations showed higher effect size than journals or M.A. theses. As the result of the meta-analysis on publishing year and the number of sample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 keyword : | Teacher Efficacy | Job Satisfaction | Meta-analysis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유아의 보육·교육의 문제는 가족 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가족의 공동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질, 즉 교사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교수행동은 자신의 교수에 가지는 신념과 관계가 있으며, 유아교사의 교육신념은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19].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학교조직의 구조 및 특성, 교사의 개인적 배경이나 직무만족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2][7][44]. 관련 변인 중에서 직무만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교육적 기술보다는 교사가 가지는 신념체계, 자아개념, 직업의식 등과 같은 질적인 변인이 교육의 실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사기에 영향을 주며, 교사의 사기는 유아에게 전달이 되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11][33]. 또한 교사가 직무에 만족하면 자신 또는 조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어 직무 성과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29]. 따라서 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개의 연구들은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변수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즉 두 변수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하며, 어떤 특정한 연구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요약 정리된 결과의 산출이 필요하다[1]. 또한 각각의 학자들이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변수만을 활용한 개별연구를 종합하여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 중 직무만족과 상관이 높은 변수 혹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 교사효능감과

상관이 높은 변수 등을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효한 변수도 알 수 있다. 즉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개별연구로만 보았던 연구 틀에서 벗어나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의 실증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메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타분석의 방법인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변수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의 방법으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 및 두 변수의 하위변수 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수집·분석하여, 두 변수들 간의 효과크기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1-1.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1-2.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하위변수들 간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1-3.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들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1-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들과 직무만족 하위변수들 간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절변수(논문유형, 표본 수, 출판연도)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통제소재이론과 심리학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교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이론이다. 즉 교사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라 볼 수 있다[37]. Bandura[39]는 교사효능감을 구체적 교육 장면에서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실행하는 능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개인 교수효능감과 일반 교수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 교수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역할을 수행 시 스스로 적절한 교수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교수행동과 교육이 유아 및 아동의 성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기대를 의미한다[43][45].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에 대하여 Denham과 Michael[42]은 개인적인 특성 변인, 교사연수, 교육경험, 체제변인, 교사귀인 등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교사효능감 변인을 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교사의 직무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는 성별, 경력, 학력, 직급, 지식, 능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 체계, 노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체계, 교사의 귀인신념체계, 교사의 정서 등을 들었으며, 교사의 직무환경 변인으로는 지역사회 의 여건, 학생의 가정환경, 학생의 능력과 특성, 학교체제와 교직원문화 등을 들었다. 이 중 교사연수는 전문지식을 갖추게 하고, 연수과정 자체가 교사를 전문인으로 취급하여 교사 스스로 전문가라는 인식과 정서를 갖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겪었던 성공과 실패경험, 자신의 교육행위에 대한 피드백 등 과거의 경험들이 교사효능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체제변인의 경우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환경적 요소들로 주로 학교 의사결정 구조 및 참여기회, 직무의 도전적 가치, 사회적 인정, 교육행정가나 동료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일반 사회로부터 교직에 대한 인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귀인

은 교사효능감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이라 볼 수 있다[26].

2.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Steers와 Porter[46]는 구성원이 직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얻는 보상이 인정되는 보상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Weiss[47]는 직무만족을 직무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황외성[34]은 인간과 조직의 관계에서 조직의 구조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송영선, 이희수[13]은 직무만족에 대하여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나 정서적인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념을 종합하여, 직무만족은 직무에 만족하는 개인의 정서적 태도와 직무경험에 관하여 느끼는 감정 및 업무에 대한 보상에 만족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직무만족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조직구성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므로 즐거움과 보람을 직장에서 찾게 된다. 이것은 곧 삶의 만족을 직장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31]. 그렇다면 삶의 만족을 가능하게 해 준 조직에 대하여 충성심을 다할 것이다. 이것을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구성원의 향상된 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조직의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주어 조직 목표 달성과 조직성과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직무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22].

3.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선행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4][5][8][35], 교사효능감과 스트레스 변인, 직무만족 관련 연구[10][23]

[28], 교사효능감과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4][32], 교사효능감과 역할갈등, 직무만족 관련 연구[30] 등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라는 특정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아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태, 이경남, 하수연[9]은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 및 창의적 인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개인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을 포함한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이나 동료교사관계, 복지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의적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숙[5]은 5세 누리과정 교사들의 누리과정이해와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중 교사효능감은 유치원 교사가 높았으며, 직무만족도 역시 유치원 교사가 높았다. 또한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였다. 노은아[8]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및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여부와 고용형태, 근무시간과 아동비율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개인 변인으로는 보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성희, 박영신[20]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경력,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사이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직무만족과 달리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은 교사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두 변수의 관계 및 각각의 하위변수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

와 직무만족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정도는 물론 상대적으로 더 유효한 변수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들을 메타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물의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학술논문 전자 검색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http://riss.kr)를 활용하여 '유아교사 교사효능감'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에 대하여 둘 중 한 편은 제외하였다. 박사 학위논문을 재정리하여 발표한 학술지 게재 논문은 학술지 논문으로 포함시켰다.

수집된 논문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계수, 표본수가 표시된 논문을 선택하였고, 둘째, 양적연구를 하였지만 연구결과에 필요한 통계적 수치(피어슨 상관계수)가 없어 효과크기로 변환이 불가능한 논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중복된 표본을 사용한 논문은 제외시켰다. 넷째, 특정과목이나 분야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검색·선정하였으며, 총36편이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학술지는 15편, 학위논문은 21편이다. 분석대상 논문 중 하나의 논문에 집단 간 통계치가 두 개인 연구논문이 있어 총 분석대상 논문은 36편에서 1편이 추가된 37편이다. 분석대상 논문 중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을 각각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계수를 제시한 논문 또는 교사효능감 전체와 직무만족 전체에 대한 상관계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하위변수를 제시하여 상관계수를 제시한 논문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변수의 유형을 입력하였다.

즉 하위변수만 제시되더라도 각 항목을 분석대상을 삼아 Borenstein 등[40]이 제시한 방법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선정하였으며 선정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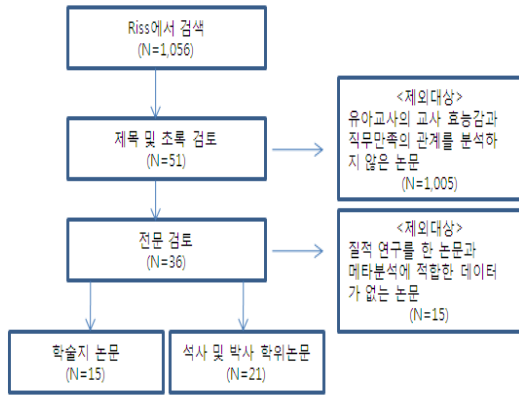


그림 1. 자료수집 및 선정을 위한 Flow Chart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는 개인 교수효능감, 일반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 전체이며, 직무만족의 하위변수는 근무환경, 복지후생, 인간관계, 직무자체의 신념, 직무만족 전체이다. 조절변수는 논문유형, 출판연도, 표본수이며, 논문유형은 학술지와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출판연도와 표본수는 연속형 변수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논문유형은 메타 ANOVA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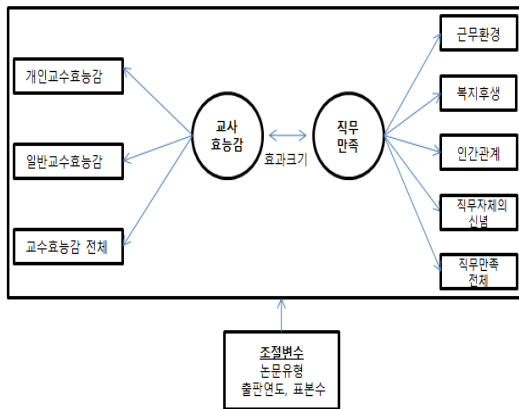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절차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기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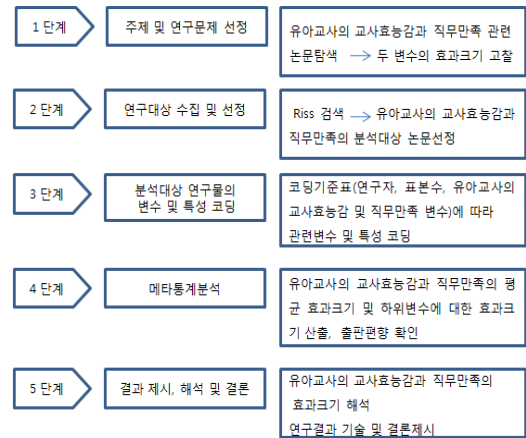


그림 3.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메타분석 절차

3. 자료처리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6편의 논문에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변수, 직무만족 변수, 연구물의 조절변수를 추출하여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딩항목으로는 연구자, 상관계수, 표본수, 논문 출판연도, 논문 유형, 교사효능감 변수, 직무만족 변수 등을 설정하였다. 코딩항목 중 표본수, 출판연도, 논문유형은 본 연구의 조절변수이다. 이상의 변수를 조절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표본수, 출판연도, 논문유형의 경우 연구물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메타분석 시 자주 활용되는 조절변수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메타분석[14-17][25]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절변수이다.

이렇게 분류·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입력한 자료에 대해 미국 Biostat사가 개발한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변수의 관계에서 평균 효과크기 및 두 변수의 하위변수 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효과크기를 조절변수에

따라 메타 ANOVA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효과크기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37편에서 제시한 하위변수 유형을 연구 내 다중결과(multiple outcomes within a study)로 입력하여 총 289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평균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메타분석하기 위해 총 3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선 효과 모형을 이용한 평균 효과크기는 .328이며 신뢰구간 하한선 .278, 상한선 .377이며, 유의수준 $P < .001$ 로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ohen[41]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서 $r = .25$ 를 중간효과로, $r \geq .40$ 을 큰 효과로 보기 때문에 유

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평균 효과크기인 .328은 중간 효과크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과 효과크기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4]의 Funnel plot을 확인한 결과,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며 출판편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Egger의 회귀분석으로 각 연구의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P값이 유의하지 않아 편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출판편향의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간의 효과크기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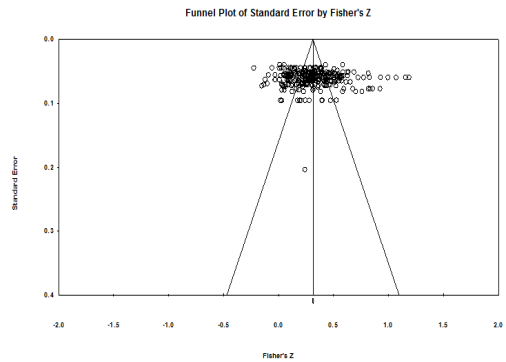


그림 4. Funnel plot

표 1. 평균 효과크기

모형	연구물	효과크기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Z	P
무선효과모형	37편	.328	.278	.377	12.136	.000

표 2. Egger의 회귀분석

초기값	표준오차 r	95% 하한선	95% 상한선	t-값	p-값
2.07784	1.22567	-0.33460	4.49.29	1.69527	0.09111

표 3.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하위 변수들 간의 효과크기

하위변수	효과 크기	효과크기 데이터수	LL	UL	Z	Q, df(Q), P
근무환경	.259	52	.219	.298	12.280	Q-value: 102.356 df(Q): 7 P-value: .000
복지후생	.187	53	.142	.231	8.021	
인간관계	.383	51	.327	.437	12.308	
직무만족전체	.404	50	.358	.447	15.813	
직무자체신념	.384	52	.328	.437	12.364	
미분류변수	.171	31	.116	.226	5.971	
전체	.281	289	.261	.300	27.122	

3)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들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 분석결과

전체 효과크기 데이터 수 28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Q값이 2.114(df(Q)=2, P=.348)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에 따라 직무만족의 효과크기 차이는 없으므로 확인되었다.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교수효능감 전체’의 데이터 수가 11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4) 하위변수 간의 효과크기 분석결과

전체 효과크기 데이터 수 289개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들과 직무만족 하위변수들 간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에 제시된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데이터 수는 모두 15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교수효능감 전체와 직무자체 신념’의 관계이며 .432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 효과크기 데이터 수는 ‘교수효능감 전체와 직무만족 전체’가 27개, ‘교수효능감 전체와 복지후생’이 20개, ‘개인교수효능감과 근무환

표 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들과 직무 만족 간의 효과크기

하위변수	효과 크기	효과크기 데이터수	LL	UL	Z	Q, df(Q), P
개인교수효능감	.320	92	.278	.361	14.029	Q-value: 2.114 df(Q): 2 P-value: .348
일반교수효능감	.281	83	.236	.325	11.705	
교수효능감전체	.320	114	.283	.355	16.175	
전체	.309	289	.286	.332	24.359	

표 5. 하위변수 간의 효과크기

교사효능감하위변수 ↔ 직무만족하위변수	효과 크기	효과크기 데이터수	LL	UL	Z	Q	P
개인교수효능감 ↔ 근무환경	.287	18	.208	.363	6.817	149.795	.000
개인교수효능감 ↔ 복지후생	.186	17	.085	.284	3.580	198.323	.000
개인교수효능감 ↔ 인간관계	.379	18	.285	.465	7.392	231.983	.000
개인교수효능감 ↔ 직무만족전체	.416	12	.326	.498	8.311	102.426	.000
개인교수효능감 ↔ 직무자체신념	.386	18	.283	.471	7.651	226.579	.000
일반교수효능감 ↔ 근무환경	.237	16	.163	.308	6.157	99.029	.000
일반교수효능감 ↔ 복지후생	.233	16	.150	.313	5.416	124.444	.000
일반교수효능감 ↔ 인간관계	.372	16	.260	.473	6.165	260.830	.000
일반교수효능감 ↔ 직무만족전체	.361	11	.243	.468	5.174	138.198	.000
일반교수효능감 ↔ 직무자체신념	.323	16	.205	.432	5.161	274.334	.000
교수효능감 전체 ↔ 근무환경	.251	18	.193	.308	8.173	95.678	.000
교수효능감 전체 ↔ 복지후생	.152	20	.097	.206	5.381	93.740	.000
교수효능감 전체 ↔ 인간관계	.399	17	.301	.489	7.411	279.840	.000
교수효능감 전체 ↔ 직무만족전체	.416	27	.356	.472	12.423	260.442	.000
교수효능감 전체 ↔ 직무자체신념	.432	18	.348	.510	9.088	237.301	.000

표 6. 논문유형별 하위집단 분석

논문유형	효과크기 데이터수	효과크기	LL	UL	Z	Q, df(Q), P
학술지	101	.294	.266	.322	19.221	Q-value: 17.678 df(Q): 2 P-value: .000
석사학위논문	124	.264	.231	.297	14.991	
박사학위논문	64	.411	.352	.467	12.437	
전체	289	.295	.275	.315	27.040	

경, ‘개인교수효능감과 인간관계’가 각각 18개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하위변수들 간의 효과크기 분석결과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수들 중 근무환경이나 복지후생과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 인간관계나 직무자체 신념과 같은 내적요소의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2. 조절효과 분석결과

1) 논문유형별 분석결과

효과크기 289개로 논문유형별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Q값이 17.678(df(Q)=2, P=.000)로 집단 간의 효과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의 효과크기는 .294, 석사 학위논문은 .264, 박사 학위논문은 .411로 박사 학위논문이 학술지나 석사 학위논문보다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2) 출판연도 및 표본수별 분석결과

전체 효과크기 데이터 수 289개로 출판연도 및 표본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출판연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울기는 .003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크기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를 보면 대부분의 효과크기들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집중되어 그 시기를 기준으로 많은 연구물들이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구분	통계치	SE	Z	P
기울기	.0031	.0032	.95	.3404
절편	-5.9012	6.5243	-.90	.3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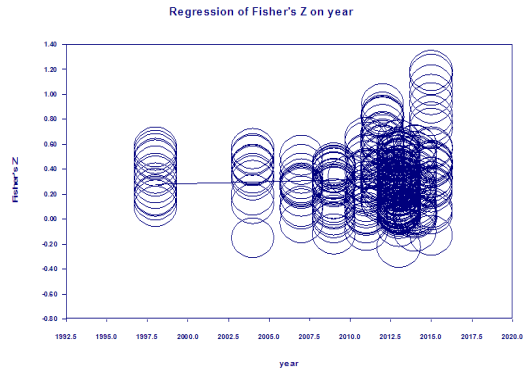


그림 5.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그래프

표 8.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구분	통계치	SE	Z	P
기울기	-.0002	.0001	-1.57	.1167
절편	.3771	.0392	9.63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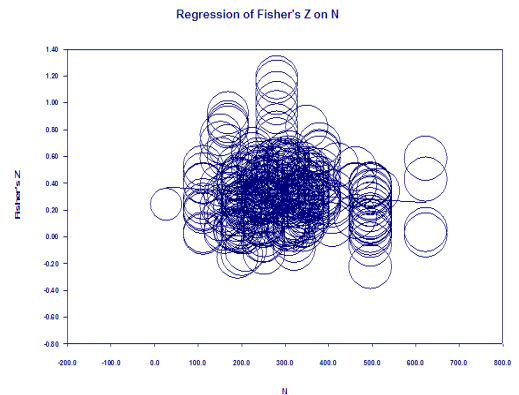


그림 6.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그래프

표본수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기울기는 -.000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크기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약 300명을 기준으로 효과크기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효과크기 및 두 변수의 하위변수 간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Cohen[41]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간 효과크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 관계를 보여주는 Funnel plot에서 두 변수 간의 출판편향을 확인한 결과 좌우대칭을 이루며 출판편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Egger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P값이 유의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개별연구들[20][21][32][35][36]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부분 개별연구들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시된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도출한 두 변수 간의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변수와 직무만족 변수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라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 직무만족 전체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의 하위변수에 따라 유아교사 교사효능감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효과크기가 높은 직무만족 전체를 직무만족의 변수로 활용한 논문은 김명숙[5], 이현정[24], 박유미

[10], 이경순[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직무만족을 측정할 때 직무만족 각각의 하위변수를 측정하고 후 하위변수를 합산한 직무만족 전체로 통계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변수를 측정할 때 변수의 하위변수 통계치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련 연구물에서는 변수의 하위변수 통계치는 물론 하위변수의 합산을 통해 직무만족의 전체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물이 다수 존재하였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수로 직무만족 전체를 제시하였으나, 직무만족의 다른 하위변수와는 다른 성질의 변수라 할 수 있다. 직무만족 전체를 제외한 하위변수 중에서는 직무자체 신념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셋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 중에서는 개인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은주[28], 권성민[3], 최옥련, 유구종[32]의 개별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전은주[28]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개인 교수효능감이 일반 교수효능감보다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개인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에서 직무자체 신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권성민[3], 최옥련, 유구종[32]의 연구에서도 역시 개인 교수효능감과 직무자체 신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교사역할의 수행 시 교수행동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개인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일반 교수효능감보다 높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유아교사의 내적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내적신념과 관련된 개인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교수효능감 전체와 직무자체 신념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상관이 높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연구결과[12][20][27][48]들과 맥을 같이 한다.

다섯째, 논문유형, 출판연도 및 표본수를 메타분석의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논문으로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 중 박사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판연도와 표본수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출판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크기가 증가하지 않았고, 표본 수 역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크기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중간 효과크기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상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개인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직무자체의 신념이 교사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개개의 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연구물 즉 연구 환경에 따라 다른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존의 개별연구만으로는 어떠한 변수가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나, 메타분석 결과 개인교수효능감이 일반교수효능감보다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직무자체의 신념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나 근무환경, 복지후생과 같은 기관 요소보다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만족인 직무자체의 신념이 교사효능감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이나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 교사의 내적 신념인 개인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인 근무환경이나 복지후생, 원장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무자체의 신념이 교사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즉 개인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무에 대한 보람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하위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기존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 본 연구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교

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하위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도출함으로써, 유아교사들의 직무만족에 유요한 변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련 연구물들을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유아교사 교사효능감'이라는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관련 연구물이지만 제목에 '교사효능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련 연구물이라도 필요한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련된 모든 연구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 논문유형과 출판연도, 표본수를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조절변수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기관의 유형이나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는 조절변수의 요인이 제시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제시된 연구물들을 메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 문헌

- [1] 공은화, *학습조직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 구수진, *유치원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 권성민, *유치원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 김난숙,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5] 김명숙, *5세 누리과정 교사들의 누리과정 이해와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비교*,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6] 김 신덕,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역할 수행 능력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7] 김아영, 김민정, “초등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조직풍토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3호, pp.5-29, 2000.
- [8] 노은아,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및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9] 박영태, 이경님, 하수연,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및 창의적 인성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75-298, 2009.
- [10] 박유미,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및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서주희,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2] 손은주, 박영태, “교사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pp.233-253, 2011.
- [13] 송영선, 이희수, “조직문화 유형과 학습조직 수준 및 조직효과성 관계,” *HRD연구*, 제11권, 제2호, pp.115-151, 2009.
- [14] 송주연, “성취목표와 학업성취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1호, pp.225-250, 2012.
- [15] 오순문,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교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연구*, 제27권, 제3호, pp.327-347, 2010.
- [16] 오승희, *학교조직 효과성의 메타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7] 윤연희,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직무만족도 및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8] 이경순,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제8권, 제1호, pp.269-284, 2013.
- [19] 이분려,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0] 이성희, 박영신,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31-50, 2007.
- [21] 이세나,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 제14권, 제2호, pp.1-21, 2007.
- [22] 이종만,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활동과 성과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기조절학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3] 이지원,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교사효능감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이현정, *교사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과 직무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5] 임선아, 정운정, “메타분석을 통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검증,” *교육학연구*, 제51권, 제3호, pp.83-105, 2013.
- [26] 임성택, *교사효능감*, 서울: 강현출판사, 2011.
- [27] 임수진, 여은진, 이혜원, “영유아 교사의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조직몰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3호, pp.301-318, 2013.
- [28] 전은주,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9] 조부경, 고영미, 박근희,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 요인에 관한 연

- 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pp.81-94, 2003.
- [30] 채영란, "유아교사의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연구, 제8권, 제3호, pp.115-135, 2009.
- [31] 최병학, *공공스포츠클럽센터의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2] 최옥련, 유구종,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201-224, 2013.
- [33] 최은희,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34] 황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이 내부고객의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서비스성파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5] 황현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6] 황혜익,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 제12권, 제2호, pp.157-180, 2013.
- [37] P. T. Ashton,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5, No.5, pp.28-32, 1984.
- [38] P. T. Ashton and R. B. Webb,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1996.
- [39] A. Bandura, *Self-efficacy*, N.Y.: W.H. Freeman and Company, 1997.
- [40] M. Borenstein, L. V. Hedges, P. T. Higgins, and H. R. Rothstein,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INC, 2009.
- [41] J. Cohen,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Vol.112, No.1, p.155, 1992.
- [42] C. H. Denham and J. J. Michael, "Teachers' sense of efficacy: A definition of the construct and a model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Vol.6, pp.39-63, 1991.
- [43] S. Gibson and M. H. Dembo,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6, No.4, pp.569-582, 1984.
- [44] R. D. Goddard, W. K. Hoy, and A. Woolfolk-Hoy, "Collective teacher efficacy: Its meaning, measure, and impact on student achieve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37, No.2, pp.479-507, 2000.
- [45] I. M. Riggs,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Vol.74, No.6, pp.625-637, 1988.
- [46] R. M. Steers and L. W. Porter, "Employee commitment to organizations,"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Vol.99, pp.441-451, 1983.
- [47] H. M. Weiss, "Introductory comments: Anteced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at work," *Motivation and Emotion*, Vol.26, No.1, pp.1-2, 2002.
- [48] D. M. Zuckerman, "Str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How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Sex Roles*, Vol.20, pp.429-444, 1989.

저 자 소 개

공 은 화(Eun-Hwa Gong)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 평생교육, 효능감, 메타분석